



탄자니아 시냇가교구(2016)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2022)

2022 가을

제220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시로 사랑하여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 발행인 정순택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525호 해외선교봉사국
전화 02)727-2407, 2409, 2424 | 이메일 mission@seoul.catholic.kr | 팩스 02)727-2411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콜롬비아 엔가티바교구(2022)



페루 카리바이요교구(2022)



해외 선교 사제

11개 국가 19명

• 독일 신정훈 미카엘

•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P.04)

김윤복 모세 (P.08)

신광수 베드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성천 스테파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P.11)

김재원 베드로사벨

김경진 베드로

가을호 특집

1.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대만 임창재 신부님 (p.11)
2. 선교지 이야기 |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p.16)
3.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 콜롬비아 양호 신부님 (p.28)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P.18)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P.16)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P.23)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P.20)





선교지
이야기

일본



김태근 베드로 신부

일본 오사카대교구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카대교구에 파견돼 현재 고베에 살고 있는 김태근 베드로 신부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반에서 2등 했는데, 이번에도 무난하게 2등을 아니 조금 더 노력한다면 1등까지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 반에 학생이 2명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드립니다)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7,975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15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세례자 요한, 성

성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그래도 지난 학기는 반에 학생이 4명 있었답니다.

모쪼록 일본어 공부를 모두 마치는 9월에 꼭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할 수 있기를 빌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어 어학교를 가는 길에 왕복 2차선 횡단보도가 있는데, 별도의 신호가 없어 바쁜 출근 시간이면 대부분의 차가 멈춰서지 않고 썹썹 지나칠 때 많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어느 날,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비가 제법 내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노란색 우의를 입은 그 운전사를 보며 문득,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차 밖의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차가 멈춰 서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심정을 알아차린 것은 오로지 같은 비를 맞고 있는(어쩌면 더 호되게 맞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사였다는 것을,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오신 하느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4월 추기경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교구 휴대폰(오사카대교구는 휴대전화를 지급해줍니다. 컴퓨터도 줍니다. 아, 그리고 보니 차도 주는군요. 물론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으로 와서 결국엔 사무처장 신부님한테 받은 문자를 통해 추기경님께 전화를 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인즉, 이번에 협력 사제로 발령을 내시겠다는.(오사카대교구는 인사발령을 추기경님이 전화로 알려주십니다.)

하여, 2년 동안의 어학연수가 아직 채 끝나기도 전에 고베 동부 지역 3개의 성당을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다면 숨만 쉬고 운전해서 가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효고현 북부의 토요오카라는 성당을 격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한 달은 여행하는 기분으로 갔지만, 거리도 제법 되어 기차를 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 3대의 기차가 있는데 차보다는 제법 걸려 왕



복 6시간 정도 그래도 줄음운전에 대한 부담도 덜고 해서 종종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불일이 생겨, 열차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역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역 앞의 왕복 6차선 큰 대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제가 타야 할 기차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걸 놓치면 무려 4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안절부절못하다 결국엔 뛰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오는데도 창피함과 위험함을 무릅쓰고 뛰었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온 힘을 다해 간신히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때 살짝 울컥했습니다.

이 한 대의 미사를 위해 집에서 역까지 그리고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서 피약벌에서 20분을 걸어 성당으로 안 되는 일본어를 위해 몇 번을 읽고, 강론을 쓰고, 번역하고, 도움받고, 수정하고 이 한대의 미사를 위해... 그냥 그날 아침 미사는 좀 그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컥했습니다.

정말 가깝게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흔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신데 작년 겨울 이곳 고베에 오면서 알게 된 할머니입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보다 앞서 친하게 지내시던 프랑스 신부님도 다른 성당에 발령받아 떠나시고, 늘 할머니를 차에 태워 모시고 성당에 오시던 사무장님도 은퇴하시는 바람에 우연히 매일 아침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흔이 넘은 테레지아 할머니는 첫차를 타고 성당에 옵니다. 하느님께서 늘그막에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되는 은총을 주셨다며 무거운 가방을 두 개씩 걸머쥐고 성당에 오십니다. 그 할머니를 위해 언제부턴가 저는 성당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성당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할머니를 본 다음부터, 네. 어쩌면 데레사 할머니 덕에 저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성당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테레지아 사카이 료오코 상.

도쿄 한인 성당에서 일본에서 파견된 신부 전원이 모였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을 김대건 신부님 기념일에 게다가 도쿄 한인 성당 주보 성인 축일에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온유한 고찬근 루카 신부님과 도쿄 한인 성당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추신: 부족한 언어 실력에 번역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번역기가 하루는 “설교”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잔소리”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럼….





선교지
이야기

일본



일본 요코하마

김윤복 모세 신부

일본 요코하마교구

‘올해는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늘어난 감염자로 인해 제가 있는 고텐바 본당은 세 번째로 미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반 이상 되는 본당인 만큼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는 별개로, 사목회의 토론을 거쳐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미사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8월 말 현재도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9월에는 하향세로 돌아서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수도 도쿄**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7.1%**성인** 42명**복자** 396명**수호** 세레자 요한,**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그렇게 본당의 미사가 중지되어 조금은 우울한 상황이 되었지만,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0시 반 주일미사를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10명 남짓한 분들만 가능한 ‘ZOOM’ 미사지만 참례 후 성당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영성체도 할 수 있기에, 미사를 중지하고 있는 동안 조금이나마 신앙생활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던 예비자 교리도 어렵게 어렵게 진행해서 세레자, 대부모, 가족만 참석한 세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자 교리는 작년 겨울에 시작했지만, 그동안 두 차례의 미사 중지와 함께 교리도 중지되었고, 그 결과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세례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레자와 가족들 그리고 ‘ZOOM’을 통해 함께 미사에 참석한 교우분들의 축하 속에서 두 분의 형제님이 고텐바 본당 공동체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사가 중지된 사이, 2년 반 만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한일 양국 간의 항공편이 많이 생겼고, 가족들 얼굴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미사는 ‘ZOOM’을 통해 한국에서도 고텐바 본당 교우분들에게 미사하는 모습을 보내드릴 수 있기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9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부모님 얼굴을 뵈고 다행히 그동안 별일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귀국한 신부들처럼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해외선교 신부들을 돌봐주시는 구요비 주교님과 송영호 신부님 그리고 해외선교봉사국 직원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우연하게도 동기 신부님들을 만나 간단하게나마 안부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고텐바 성당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제 소속 교구는

서울대교구이고, 저는 서울대교구 신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본당은 고텐바 성당이고 저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양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고향은 당연히 서울대교구이지만, 지금의 제가 발 뻗고 누워서 쉬고 일해야 하는 곳은 파견되어 사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행은 잠시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 쉬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제 삶의 자리로 돌아온 지금은 또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저마다 사목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신부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감상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휴가 온 신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모든 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 특히 해외에서 선교 중인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부

대만 타이중교구

찬미 예수님!

대만에서 지내고 있는 임창재 신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다들 무탈 하신지요? 한국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뉴스를 본 직후여서 그런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만도 5월, 6월을 지나며 확진자가 급등하여 최고 정점을 찍은 후, 7월에는 하루 평균 3만 명 대의 추세를 보였고 8월 말 현재는 하루 평균 2만 명 대 중후반입니다.

대만 정부 정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각자 개인이 위생과 마



스크 착용에 힘쓰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자 가정이 확진되었고 또 격리하였습니다. 연세 많으신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당분간 집에서 방송으로 미사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확진되면 직장 출근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 몇몇 신자들도 역시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는 중단 없이 계속 봉헌하고 있고, 봉성체, 성시간, 레지오 기도 모임과 가정 방문도 계속 조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하였던 여타 활동과 행사 등은 코로나 상황을 보가며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적은 숫자이지만 꾸준히 함께하시는 신자들도 계셔서, 그렇게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며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미

사가 끝나면 함께 마당의 낙엽을 쓸기 바쁘고, 저녁 미사가 끝나면 멀리 사라지는 신자들 스쿠터의 빨간 후미등을 보며 배웅한 후, 바깥 대문을 닫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한 짧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당 설립 71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곳, 제가 지금 사목하는 이 본당은 “타이쥡(台中) 교구의 루강(鹿港) 성당”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타이쥡(타이중) 교구입니다. “대만”의 “대”의 발음이 ‘타이’고, ‘중’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자 “가운데 중”입니다. 즉, 대만의 중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부의 수도 타이베이와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남부 까오슝의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²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교구 1개

구역 교구 7개

딱 중간 지역, 그러니까 대만 섬 전체로 봐도 딱 중간입니다.

루강 지역은 대만 서해안 중간쯤에 위치하며, 청의 통치 시대에는 천연의 양항(배가 드나들거나 머무르기에 좋은 항구)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 대륙과의 항로가 열리면서 말 그대로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항만 기능이 소실되고, 일본 통치 시대에는 철도 수송망의 영향으로 점차 루강의 번영은 내림세를 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여전히 유명한 “루강 옛 거리”와 이름난 사찰을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아기자기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말, 주일이면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주택, 시장, 작은 상점들, 몇몇 관공서와 학교들이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이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타이쥔과 같은 큰 도시로 자주 나가야 합니다.

루강 성당은 1951년 메리놀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가 열여덟 번째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는 미국 메리놀 수녀님들께서 본당 사목에 협력하셨고, 1993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 ‘예수 성심 시녀회’ 수녀님들께서 그 소임을 맡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신자들이 본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연세 많은 어르신이 다수를 이루고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을 찾아 다른 대도시로 옮겨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기 전에는 첫영성체 교리반도 운영하고 어린이 복사단도 구성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교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신앙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에, 다시금 어린이 복사단을 활성화하고 주일학교도 정상화할 생



각입니다. 8월 말 현재, 매일 평균 2만 명 대 중후반 정도의 확진 추세를 꾸준히 보여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황을 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꾸준히 모여 함께 기도하는 레지오 단원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분 한분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시절부터 이 본당과 함께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성당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 사진 속 곳곳에,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하셨던 그분들의 과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꾸준한 신앙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과 성경 통독반을 계획하고 있고, 딱 한 명뿐이지만 예비자 교리반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고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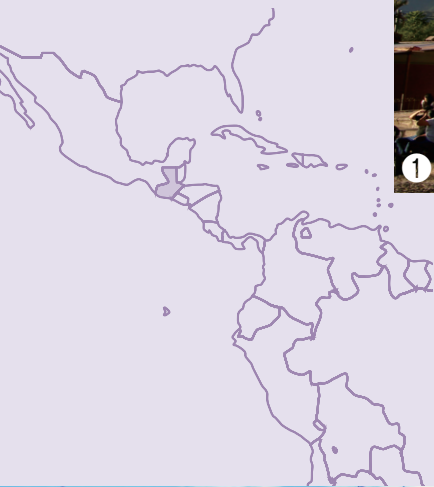
돌아보면 코로나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기에 작은 것부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목회와 함께 10월 말 전체 신자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고해 성사와 성지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 받고, 모두 함께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루
 깡 신자분들 가정 모두를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오늘
 은 서울에 계신 모든 신자분의 가정도 함께 기억하며 잠시 후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당 마당에서 여
 러분들을 떠올리며 묵주를 돌립니다. 모든 일은 하느님 뜻대로...
 아멘.



선교지 소식

- 과테말라
- 콜롬비아
- 페루



①

과테말라

01. 김현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 선교 중인 산티아고대교구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02. 본당 주보 성인 축일에 성체 행렬을 하는 모습입니다.
03. 성체 행렬 다음 날 성상 행렬을 하는 모습입니다.
04. 공소 건립을 위한 바자회에서 아이들에게 나초를 사주는 모습입니다.



②



③



④



아미칼

1년에 한 번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14개국에서 약 60여 분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롬비아

05. 박형문 바오로 신부님이 선교 중인 엔가티바교구의 '그리스도 사제 성당'입니다.
 06. 사무실에서 사무장님과 대화 중인 모습입니다. 치안 문제로 앞에 철창살이 있습니다.
 07. 주변 풍경입니다. 도시 빈민들이 많은 지역이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08. 중남미 어디를 가도 교우분들의 따뜻한 환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제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며 사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9



페루

09. 양용석 신부님이 선교 중인 페루 리마의 모습입니다. 본당의 날을 맞아 신부님이 청년들과 함께 댄스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리마는 건조한 사막기후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산 중턱에 보이는 집 중 하나가 교리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항상 부연 젖빛 모래들이 가득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신부

칠레 이키케교구

찬미 예수님.

칠레의 이키케교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규 신부입니다.

우리 교구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근 새로운 주교님을 맞은 기쁨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의 형제, 자매들이 ‘작은 형제회’ 신부님이신 새 주교님과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전 주교님께서 다른 교구로 발령이 나신 후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주교님의 자리가 드디어 이번 6월 새로운 주교님이 오시

칠레

수도 산티아고

면적 76만km²
(한반도의 약 3.5배)

인구 1,911만 6,201명
(세계 63위)

종교 가톨릭 45%
무교 32%
개신교 18%
기타 5%
(2019년 통계)

- 칠레 교회는 2010년 이후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이 59~80%의 신자 비율을 보이는 것과 대비됩니다(2019년 통계상 45%).

성인 2명

복자 2명

수호 로스 안데스의 성녀

성인 데레사, 알베르토
우르타도

관할 대교구 5개, 교구 19개

구역 성직자치구 1개
군종교구 1개
대목구 1개

면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서울대교구에서 했던 저로서는, 교구장 주교님이 없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의 커다란 결핍이었습니다만,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교님의 부재 속에서 진행된 시노드의 여정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재미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함께 걷는 신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신자들 역시 그들과 함께 할 주교나 성직자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목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발령받은 신부가 존재하지 않는 마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시노드의 여정을 걸으면서 들었던, 그들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바램은 역시 자신들에게도 사제를 파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구장 주교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늘 항상 빠지지 않았던 주제는 하루라도 빠른 새로운 주교님의 임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은 ‘시노달리타스(시노드 정신)’라는 함께 걷기 위한 초대가 단순히 성직자, 수도자로부터 신자들을 향한 일방향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느님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희망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신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역시 사제와 주교의 동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득 지니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목자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울대교구처럼 항상 본당에는 주임 신부가 있고, 또 여러 주교님을 늘 모시고 있는 축복받은 상황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지 모를 부분을 결핍의 상황에 놓이면서 다시금 빠져리게 깨닫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 안에는 시노드라는 커다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교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노달리타스’라는 표어 아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주교님의 부임과 함께, 그동안 가졌던 대화들이 다시금 빛을 받고 힘을 얻어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처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함께 나아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서로서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모든 분께 칠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청해봅니다.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페루 카라바이요교구

모두 평안하신지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제가 이곳 페루에 온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번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페루의 경우 최근에 다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또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 한참 정점일 때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기후 문제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 등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올 한해 전반기 함께 걷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모임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페루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열린 세계, 열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모든 형제들' 3~4장 참조).

팬데믹 초기에 많은 나라들은 폐쇄된 면모를 보였습니다. 페루도 마찬가지로 항공과 내륙의 교통과 통행 등 많은 부분을 폐쇄하였습니



페루

수도 리마

면적 1,285,216km²
[세계 19위,
한반도의 약 6배]

인구 3,282만 4,358명
[세계 42위]

종교 가톨릭 76%
기독교 14.1%
기타 4.8%, 무교 5.1%

성인 6명

복자 5명

수호 리마의 성녀 로사

성인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 투리비오 데 모그로
베호

관할 대교구 7개, 교구 19개
구역 성직자치구 11개
대목구 2개
군종교구 1개

다. 이러한 외적인 폐쇄는 인간의 마음 역시 폐쇄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향 도와주는 것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함을 닮은 우리는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곳 본당에서도 길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무료 식사 나눔을 하였으며, 어린아이와 구결하는 가족들을 위해 도움 되는 것들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체계화되어서 개인에서부터 각 공소 그리고 본당이 정기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사와 성사도 예전에는 인원수도 제한하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송출하였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

성가족 공소 공사전

성가족 공소 공사 후





은 이들이 성당을 자유롭게 찾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성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복의 모양새를 되찾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공동체도 올 초부터 시노드 정신을 살기 위해 세대 간, 공소 간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룹모임을 하였습니다. 친교, 참여, 선교라는 주제로 흩어진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본당의 날 행사에서는 대화, 시노드, 출발하는 교회에 대한 주제로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당하는 공소 중 몇 군데가 새 단장을 하게 되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곳은 지붕 공사를 거의 다 마쳤고, 다른 한 곳은 공소를 완전히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진행되어온 공사는 거의 완성

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공소 밖이나 신자들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하면서 성사에 쉼이 없게 하도록 신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제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점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폐쇄되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많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죽어 가는데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때,



슬픔을 나눌 수 없었고 개인이 그것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는 이것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씩 우리는 마음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마음이 열게 되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조금씩 개방된 세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으로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역
 시도 이곳 페루에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
 두가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 나아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이야기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신부

콜롬비아 보고타대교구

+ 찬미 예수님

7, 8월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7월 20일, 10년간의 남미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귀국한 양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 6월 여름호 소식지를 통해 안부를 전했는데, 9월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만나는 신자분들의 첫인사는 “신부님, 이제 안 나가



요?” 였습니다. 10년 동안 총 4번의 본국 휴가로 한국에 왔었기에 이런 인사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 돌아갈 곳, ‘저의 집이 남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내다 오도록 도움을 주신 남미와 한국의 신자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Muchísimas Gracias!”

귀국 선교사 인사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내용으로 써야 하나 고심하다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1항과 2항의 내용 일부입니다.

1항: <<교회에 위임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명(Redemptoris Missio)은 아직 완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강생 제이천년기를 마감하며 인류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에서 보면, 이 사명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수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도록 재촉하십니다.>>

2항: <<선교활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견고 해집니다. 교회가 보편적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새로운 복음화를 고무하고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32년 전의 쓰인 내용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



야만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곧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에게는 남미라는 선교지에서 이제는

한국이라는 선교지로 장소가 바뀐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흐른 한국은 저에게는 더 낯선 곳이 되었고, 변화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습관들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낯선 고국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를 청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ADIOS!



붙임: 24차 중남미 선교사 모임(24th AMICAL BOGOTÁ) 후기

제24차 아미칼 모임이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라는 주제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한정현 스테파노 위원장 주교님과 김동원 베드로 총무 신부님 그리고 중남미 14개국에서 참여한 60명의 선교사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 발병 이후 3년 만의 모임이어서 그런지 모두 열린 마음과 자세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는 차기 회장단 선출이 있었는데, 과테말라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서울대교구의 김현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과테말라에서 차기 년도 아미칼 모임을 개최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 국가 19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윤복 모세
	김재원 베드로샤넬		신광수 베드로
	김경진 베드로		김필중 세례자요한
	민경일 아우구스티노[알래스카]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농인 선교)		김성천 스테파노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니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8월 납부일 기준)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민정 강서혜 강선경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윤복 강이순 강정애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관현 강풍자
 강혜란 강혜신 고경식 고영임 고윤숙 고의영 고정원 고혜숙 공정삼 박민지 박상원 박희경 구가은 구모석 구민영 구민희 구분강
 구승모 구연모 구자순 권경애 권성혁 권오경 권오영 권옥수 권익란 권효정 길신영 김경란 김경희 김공례 김국희 김규엽 김규태
 김금자 김기수 김기용 김길옥 김나현 김난옥 김남균 김덕수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옥 김명춘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자 김미재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옥 김민주 김민준 김병국 김봉조 김봉흙 김상옥 김선태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송태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승규
 김승희 김시호 김신순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영덕 김영미 김영석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조 김영희 김옥식 김옥제
 김완식 김용기 김용혜 김윤희 김우경 김원선 김원임 김원자 김원준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성 김은자 김인복
 김인수 김자원 김장묵 김재동 김점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원 김정용 김정희 김충철 김충필 김주경
 김주현 김중자 김지민 김지애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충희 김태순 김태운 김평화 김학덕 김한근
 김현상 김현수 김현정 김현준 김혜선 김혜숙 김효준 김후덕 김희령 김희선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성재 나정애 남기완 남승민
 남 정 남정희 남하현 노승경 노승주 노현주 노혜영 맹미숙 모명자 문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묘 민지희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남주 박다은 박명랑 박명숙 박미자 박병선 박봉자 박상희 박철진 박성규 박성분 박세진
 박수진 박승보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영주 박옥희 박용자 박윤경 박은덕 박은진 박은호 박정남 박정숙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현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중 박춘옥 박태련 박태안 박혜경 박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명옥 백선혜 백승주 백영숙 백용남 백은숙 백일순 변광국 변신호 변혜숙 서대관 서수용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지영 서효숙 석정미 석진혁 성경희 성락숙 성원경 성윤석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손희경 송근선 송금선 송민석 송민우 송영남 송이종 송재일 송진아 송평근 송혜원 신경애 신미경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솔아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용순 신유리 신윤숙 신재승 신재영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지은 신지인 신춘요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오점 안재영 안종임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우석 양정호 양하나 엄인영 엄주영 엄지원 연영흙 연재현 연현철 오 경
 오경진 오귀애 오미희 오세성 오영선 오옥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환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솔 왕은순 우영호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자 유미숙 유 숙 유숙희 유승연 유연용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한석 유해영 유희경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선화 윤소영 윤은희 윤재후 윤지숙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금숙 이금주 이기호 이길자 이나은 이동근 이두식 이만수
 이만재 이명옥 이명혜 이미경 이민재 이방자 이병열 이보차 이복국 이복동 이복순 이상구 이상귀 이상엽 이상윤 이서원 이선민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성희 이소연 이숙노 이순금 이순명 이순이 이순자 이승엽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연희 이영순 이영임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희 이요한 이웅승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유진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령 이재만 이재원 이재준
 이재희 이점우 이정민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희 이제현 이종임 이주환 이준화 이지옥 이지은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창경
 이창엽 이채미 이철항 이춘자 이태숙 이태실 이태종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형자 이혜영 이 호 이홍재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홍 임동은 임옥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선혜 임수연 임수주 임순희 임옥연 임용숙 임정렬 임정자 임주연 임태현
 임현준 임혜자 장래영 장명수 장명호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진희 장착한 장춘자 장호숙 전경복 전동원
 전병주 전상아 전옥순 전용민 전은경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상은 정상인 정선경 정선화 정세훈 정소영 정순이 정영호 정영선
 정완식 정용운 정윤희 정인경 정재현 정정윤 정지원 정지인 정지혜 정진규 정찬훈 정태양 정태원 정평화 정하영 정혜원 정홍경
 정효남 정희자 제민경 조건용 조경자 조나라 조도연 조문경 조병희 조부귀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선미
 주송라 주영신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한 차명훈 차영미 채상경 채순행 채종서 채창한 채희정 천봉순 천유진
 최경희 최길분 최동철 최명근 최문성 최민형 최보성 최선명 최성지 최성진 최성태 최세화 최소중 최소형 최승한 최영옥 최영호
 최옥경 최옥란 최 용 최은근 최원정 최윤보 최은영 최정윤 최정은 최정자 최제원 최준일 최지영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해순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환희 최희중 추명진 탁정환 태연순 태철민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윤 한동수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예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만옥 허미래 허영진 허인숙 현문섭 현성순 현정애 현해서 홍금선 홍석준 홍숙희 홍순옥
 홍승혜 홍영덕 홍인자 홍재모 홍정자 홍정희 홍주희 홍청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홍 황영옥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춘익
 김미카엘 박미리아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영리동성당 킹스쿨학원 해동동성당 이형자임정옥 Fr.구본석 Fr.김연범 Fr.김윤상 Fr.박규홍 Fr.박민재
 Fr.박우준 Fr.이계호 Fr.이병철 Fr.임상무 익 명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19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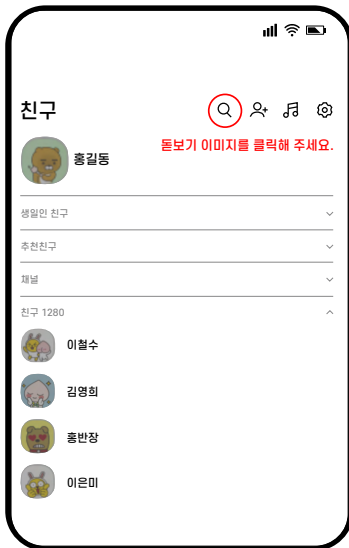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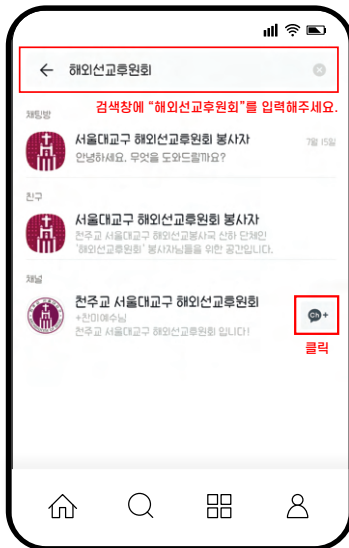
후원 신청 QR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톡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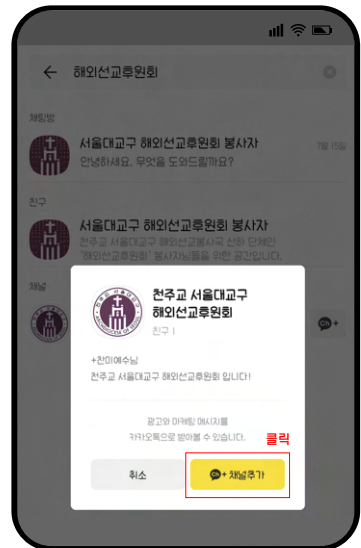
채널 추가 방법 ①



- 1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위의 **동보기 이미지** 클릭!



- 2 해외선교후원회를 입력한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버튼** 클릭



- 3 **채널추가** 아이콘 클릭

채널 추가 방법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 추가



※ 채널에 가입하시면 모바일을 통해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는 소식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필히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2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김태근 베드로 신부(일본 선교)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 mission@seoul.catholic.kr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10월 24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12월 5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